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 광 趙 珧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 명예교수)

발표 요지

세계사적으로 17세기는 위기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다. 아시아사에서도 위기론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와 같은 이론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조선에서는 전란 이후 강한 복구론이 만들어졌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사적으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적 사회개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활발한 개혁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실학'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고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이끌며 장기간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일본사와 중국사의 양상 역시 자국사와 관계사의 시각을 모두 동원하여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보다 발전적인 역사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약력

〈조 광/趙 珧/Cho Kwang〉

1945년 한국 서울 출생. 조선시대의 사상사, 사학사, 관계사를 전공.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문과 대학장, 박물관장,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작: 『조선후기사회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후기사회의 이해』,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등.